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본격화

논란이 때론 광주시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는 14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 대상지인 중앙·중외·일곡·송정·운암산·신용(운암) 등 6개 공원에 대해 공고를 내고 다음달 11일 다수제안 방식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2단계 사업과 관련해 공원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살리고 녹지나 공원면적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안서는 확정 제시한 공영시설과 비공영시설 면적 내에서 전체 공영 조성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중앙·중외 등 6개 공원 내달 11일 제안서 접수 기능·역할 최대한 살리고 녹지 보존 방향 추진

참가 대상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5개사(인) 이하 개인·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사업 등이다.

광주시는 6월11일 하루동안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의향서를 받은 뒤 9월14일 제안서를 받는다.

이어 9~10월께 공원·도시계획·건축·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와 시민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제안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협상을 거쳐 제안사업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광주시는 우선 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영조성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관거버넌스 협의의 결과와 도시공원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계획 심의 결과를 반영해

2단계 사업 공고를 냈다"며 "공원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020년 공영 일몰제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5곳 가운데 15개 공원은 재정부 입사업으로, 10개 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종합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광주시가 민간공원 단계별 지역과 관련해 지난해 8월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 시의회, 관계공무원들로 민관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한 뒤 18차례 회의와 현장확인,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서은홍 기자

동구, 의료급여 밀착관리로 비용 절감

광주 동구가 의료급여 수급관리자 중 과다이용자와 약물 중복투약을 밀착 관리해 최근 2년간 의료급여 비용을 약 10억여 원 절감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동구는 의료급여관리사 2명을 전담 배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된 의료급여일수가 연간 700일 이상인 자 중 상위 30%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한 자제를 촉구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5년 12억6천여만 원이던 의료급여 지급액이 2016년과 2017년 모두 7억6천여만 원으로 줄어 2년 동안 약 10억여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구,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관 표창

광주 서구가 2017년 ~ 2018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 지자체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그동안 서구는 취약계층을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인 가구 등 고위험가구 397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했고 생계급여 189세대, 의료급여 32세대, 주거급여 5세대를 지원했다.

또한, 동절기 긴급지원으로 867세대에 6억8457만5천원을 인적안전망 등 발굴로 민간지원 연계지원으로 2.263세대에 77.28만원을 지원했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127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여 지원하였다.

남구, 정부 등 각급 기관 공모사업에서 두각

광주 남구가 올해 상반기(5월 기준) 정부를 비롯해 각급 기관의 공모사업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내고 있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남구청이 올 한해 정부 부처 및 광주시 등 각급 기관의 공모사업 분야에서 거둔 성과는 총 15건(31억 7,3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업 선정 내역을 보면 우선 남구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주관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12억 4,800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남구는 현재 관내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해 총 12개 사회적기업에 직원 채용과 일자리 유지 등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총 46명이 새로운 일터에서 일하고 있거나 기존 일터리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구,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강화 사업개발비 지원

광주 북구가 지역경제 근간을 이루는 풀뿌리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토대 조성에 힘쓰고 있다.

북구는 지난 8일 광주시에서 주관한 '2018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공모 심사에서 관내 9개 사회적기업(인종 6, 예비 3)이 선정되어 사업비 3억 4,9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북구는 오는 23일 신규 선정된 9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업무 약정을 체결하며, 사업기간 동안 연간 지원한도(인종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광산구, 18일 오월국제교류음악회 개최

광주 광산구가 1980년 5월 광주의 정의로운 항쟁과 공동체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오월국제교류음악회'를 18일 저녁 7시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말까지 광산구가 진행하는 '2018 광산오월문화제'의 일환인 이번 음악회에는, 일본 '일어사라!합창단', 푸른솔합창단, 광주홍사단 기러기합창단, 광산구립합창단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이날 공연은 광산구립합창단의 '도라지 꽃' '꽃처럼 속에' '우리의 소원' 아름다운 나라를 시작으로 광주홍사단 기러기합창단의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따뜻한 햇볕 한 줄 될 수 있다면' '광야에서' 등이 이어진다.

임행택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광주시 옐로카펫 76개 교 추가 확대



사진은 금양초교 인근 보도에 설치된 옐로카펫.

광주시는 14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옐로카펫 설치 학교를 76개 교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대기공간의 벽과 바닥을 노란색으로 칠해 보행자는 대기선에서 대기하도록 유도하고 운전자는 보행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보행안전 시설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옐로카펫 사업을 펼쳐 지난해까지 56개 학교에 설치했으며 이번에 장원초교와 염주초교 유안초교 등 76개 교를 추가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동구 6개 교, 서구 28개 교, 남구 4개 교, 북구 5개 교, 광산구 38개 교 등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옐로카펫 설치시 보행자가 횡

단보도 안에서 대기하는 비율은 24.4% 상승하고 옐로카펫 설치지역 차량통과 시 아동인지는 2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옐로카펫 설치로 광주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영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옐로카펫이 설치되면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시대의 참스승' 광주교사 418명 훈장·표창장 수여

학교 현장에서 학생 지도와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교직원들에게 스승의날을 맞아 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한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제 37회 스승의날인 15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 3명, 교육부장관 표창 108명, 교육감 표창 303명을 시상하고, 근정포장 1명과 대통령 표창 3명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수여한다.

근정포장을 받는 광주동부교육청 오강기 중등교육지원과장은 학교폭력과 자살 예방교육 강사로 10여 년간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오과장은 교육청과 광주시청, 병원 등을 직접 뛰어나다며 위기 학생 치료비 2500만원을 마련하기도 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 봉주초 한희정 교사는 2011년 질적교육연구회 '아이의 눈으로'를 조직해 활동하며 대안적 수업형태를 제시하고 동료 교사들과 공유했다.

전남공고 이을호 교사는 매년 100여 개 기업을 방문하며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교육에 힘써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다문화·환경·생태교육을 유아교육에 접목하고 저소득층·맞벌이 가정 유아 지원에 앞장선 윤 효천 다문화유치원 이양숙 원장은 국무총리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해 노력해 온 동성고 양근순 교사,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교구를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한 은혜학교 김정은 교사 등은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조인호 기자

조선대 장미원 장미축제 오는 25일 개막

3일간 개최...5·18민주화운동 주간 피해 1주일 늦춰



조선대학교는 제16회 장미축제를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장미원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그 동안 장미가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진행하던 축제 일정을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주기를 피해 1주일 정도 늦게 개최한다.

중앙무대에서는 개막 첫날인 25

일 오후 6시부터 1부 사전행사와 개막식을 시작으로 2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 콘서트를 진행한다.

26일 오후 6시에는 광주지역 대학 동아리 경연대회가 열리고 27일 오후 6시에는 조선대 동아리 공연 '버라이어티 장미극장'을 선보인다.

조선대는 남북 교류 평화기금 조성 시민캠페인을 위한 문화예술 시민참여를 31일까지 운영한다.

조선대 미술관에서는 27일까지 장미축제를 기념하는 '화양연화-아름다운 시절, 장미로 불들다' 전시회를 개최한다.

장미원은 총 면적 8299㎡에 227종, 1만7994주의 장미가 식재됐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한다.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고흥 · 나주 · 장성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한 정 승 인 공 고

사건번호 : 광주가정법원 2018-단 434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김 영 석 (461120-1550219)
최 후 주 소 : 광주 북구 동림용산로 12, 406동 1904호 (동림동, 푸른마을주공4단지아파트)

위 망 김영석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8년 5월 15일

공 고 인 : 민숙현, 김정우, 김정은, 김혜성.
주 소 : 광주 북구 동림용산로 12, 406동 1904호 (동림동, 푸른마을주공4단지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18년 5월 8일
공고기간 : 2018. 5. 15- 2018. 7. 16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리
▶지정·건설 폐기물 처 ▶석면 해체공사

측량 >> 토목설계 >> 도시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삼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포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